

## 예수의 탄생



예수의 출생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아무리 늦어도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에 예수가 헤롯 왕(기원전 37~기원전 4 팔레스타인 통치) 때 베들레헴의 집에서 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출생한 장소를 방문하여 공물을 바쳤고, 이후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떠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구세주로 간주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없는 천사가 (베들레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파혼을 극구 말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는 아이를 임마누엘(immanuel)로 부르라고 알려주는데 요셉이 마리아가 낳은 아기를 예수(Jesus)로 작명합니다. “‘잉태한 자는 성령(Holy Spirit)으로 된 것이라’(마태복음 1:20)라는 구절은 이 임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대리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지만,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sup>1)</sup>

한편 예수의 탄생 시점과 관련하여 누가복음 2:1-2에서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다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야구스도[Caesar Augustus(기원전 63~기원후 14), 기원전 27~기원후 14 재위]가 인구조사를 실시하자 이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여관방을 구하지 못해 그곳 구유에서 예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기원후 6년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 구레뇨(Quirinius, 기원전 51~기원후 21)를 시리아 총독으로 파견하고 유대지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헤롯 왕의 뒤를 이은 아겔레우스(Herod Archelaus, 기원전 23~기원후 18, 기원전 4~기원후 6 재위)가 기원후 6년에 폐위된 이후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며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친히 찾아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신할 것을 알리며, 태어나는 아이를 예수라 부르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 때는 다른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가 기원전 4년 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기원후 6년 전에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해는 누가복음 3:1에 디베로 황제[Caesar Tiberius(기원후 14~37 재위)]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가 지난 시점으로, 따져보면 기원후 29년이고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기원후 27~37 재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23세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3년간 활동했다면 기원후 32년에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23에는 예수가 가르침을 시작할 때의 나이가 30세쯤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하는 것보다 더 비천한 것은 없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지로라’(요한복음 8:41)고 한 요한의 기록은 또 다른 암시일까? 이 발언은 분명히 예수가 음행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의 기적 출생 이야기를 생략했으나, 두 번(1:45, 6:42)이나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 3)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목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목수의 아들’로 바꾼 것이 눈에 띕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부른 것은 곧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며, ‘사생아’(私生兒;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라는 의미다.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딸이나 아들로 지칭한다. 마가는 이름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요셉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부권(父權)의 문제를 완전히 피해 버린다. 이 같은 침묵에는 반드시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태는 마가의 용어를 재빨리 변조하여 사생아라는 힌트조차 알아차릴 수 없도록 바꾸었다. 심지어는 후대에 기록된 마가복음의 그리스어 판본은 원문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바꾸어 이 스캔들을 ‘해결’하려 한 사실도 발견된다.” 4) 마가복음에서 언급되는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장한 사람이며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직업을 목수로 언급하며 테크톤(tekt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당시의 테크톤이라는 직업은 오늘날 건설 현장의 (일용)노동자 정도다.” 5) “그리스-로마 세계의 한 학자가 『속어 사전』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무식한 하층 계급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 드러나 있다. “테크톤”은 그 책에 실린 경멸적인 용어들 가운데 하나다.” 6)

예수는 일용노동자에 가까운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누가복음 16-20) 글을 썼다는(요한복음 8:1-11) 성경의 기록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글을 썼다는 대목이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간음하다 잡힌 여성’은 후에 삽입된 것이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글을 읽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을 읽을 정도였다면 직업으로 서기를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는 지혜로웠지만 읽고 쓰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처:

- 1) 예수왕조, 제임스 D. 타보르, 김병화역, 대한교과서, 2006: 65
- 2) 만들어진 예수 참 사람 예수. 존 쉘비 스펡,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72
- 3) 만들어진 예수 참 사람 예수. 존 쉘비 스펡,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 75
- 4) 예수왕조, 제임스 D. 타보르, 김병화역, 대한교과서, 2006: 92-93
- 5) 성경 왜곡의 역사, 바트 어만 지음/민경식 옮김, 성림출판, 2006: 371
- 6) 예수는 누구인가, 존 도미니크 크로산 지음 한인철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1998: 67